

AUTHOR 최갑중

TITLE 개혁주의 성경관

IN 고신대학보

23호 (9, 1976): 1-16.

개혁주의 성경관

—성경의 유기적 영감과 해석을 중심으로—

최갑종*

<고신대학보 7월호에 실린『소송문제에 대한 주석학적 연구』주(註)54항의 비판에 대한 답변>

1. 성경에 대한 우리의 사명과 자세

우리가 받았고, 배우고, 표방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최종적 해답을 사람의 학설이나 전통이나 체험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으려는 신학이다.^① 왜냐하면 개혁주의 신학은 66권으로 된 신구약 성경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하한 오류도 없으며 따라서 교회안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규범과 권위가 될을 고백하기 때문이다.^②

이 개혁주의 신학은 참하나님이 사며 참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출발하여

성령의 감동아래 사도바울에 의해 체계화되고 초대교회가 승복, 전승한 성경적 진리를 무오한 기반으로 삼으며 이와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아래 이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해석한 어거스틴과 칼빈신생동의 사상노선을 따르기를 원하는 신학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저들에게 완전히 배어있는 닫힌 신학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적 유산과 열심을 토대로 하여 오직 성경에만 충실히 매여, 성경으로 부터,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보화를 더욱 깨어 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린 신학이다.^③

미국의 하지(C. Hodge), 워필드(B. Warfield), 벨코프(L. Berkhof), 보스(G. Vos), 영(A. J. Young), 뮐리(J. Murray), 반틸(C. Van Til) 등과 화란의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그레히다너스(Greijdanus), 스킬더(K. Schilder) 등은 이러한 자세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이름있는 분들이다.

개혁주의 성경관은 개혁주의 신학원리대로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대로 성경을 대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성경관이다.^④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할 수 있는자는 오직 성경 그 자체뿐이며 우리는 성경 그 자체의 주장에 겸손히 경청하고 승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시험하거나 비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성경자체의 도전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앞에서 가져야할 바른 자세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을 배워온 신학도로서 성경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뜨거운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고신대학보 7월호에 「소송(訴訟)문제에 대한 주석학적 연구」라는 작은 논문을 실은 바 있다. 필자가 그 글을 쓴 주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치적인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되었다는 것과 그와함께 곡해, 소개되었던 개혁신학자들의 참된 주장들이 다시 바르게 증거, 해명되어야겠다는 일념에서였다. 비록 여려면으로 아직 미숙하고 부족한 글이긴 했지만 그 글은 모교(母校)와 교단과 교회를 향한 필자의 오랫동안 사랑과 아픔과 맘과 기도와 눈물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글이 발표되자마자 일부에서 필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학적 검토는 물론 충분한 신학적, 성경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 글을 “성경교리에 도전하는 논문”이라 단정하고는 논문의 아주 작은 부분인 주(註) 54항에 나타난 일부 표현을 트집잡아 “자유주의 신신학의 선포”라 하면서 공개서신^⑥을 전국교회에 보낸

① 간하매저, 현대신학해설 (1973), p. 196.

②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1: 10.

③ H.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Eerdmans (1956), p. 32 ff

④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 3, 4, A. J. Young, *Thy word is Trut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63. pp. 17ff.

⑤ 펙커지(육한홍역),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 (1973) p. 59.

⑥ 강영식, 손상률, 주종근, 발송, 전국교회에 드리는 공개서신(제3신) 1979. 7. 15.

바 있었다.

필자는 그 공개서신이 너무나 정치적, 비윤리적, 비학문적 성격에 치우쳐 있음을 보고 사뭇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나 발송인들이 한때 필자와 함께 공부할 한 동료들이므로 배가되면 이해할날이 있겠지 하면서 계속 침묵을 지켜왔다. 그러나 저들은 주54항을 터무니 없이 확대 해석하고 곡해하여 공개서신"을 거듭 전국교회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1976년 8월 28일자 크리스찬신문 광고란에 본 교단을 이탈한 어떤분들이 자기들의 새 노회조직취지문을 실으면서 주54항을 자기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실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뿐만 아니라 본 교단을 이탈한 어떤 분들이 자처해서 주54항을 곡해하여 "평신도들에게 소개하므로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저들의 주장과 선전처럼 필자의 논문 주54항이 참으로 개혁주의 성경관에 벗어난 비성경적인 것이며 신신학적인 주장인가?

신학에 어느정도 지식을 가진 양식있는 자라고 한다면" 주54항이

신학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저들의 비판이 아무런 학적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논문 주54항에 대해 혹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질문적인 신학적 지식을 갖지 못한분들이 일부의 정치적 선전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필자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여기에 비판에 대한 답변의 글을 실는 바이다.

답변에 앞서 소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필자의 논문 주54항을 그대로 여기에 소개한다.

"고린도교회의 소송문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의 소송제도 유대소송제도 및 그메의 로마법과 재판제도를 바로 알고 있어야한다. 성경은 인간의 손을 통해 역사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계시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E. J. 영 현대 구약신학연구 (김진홍역) pp. 10-70; Sidney Greijdanus, *Sola Scriptura*, W edge pub., 1970. pp. 121-151, 218-223, G. Vos, *Biblical Theology*, WM.

- ① 강영식, 손상률, 주종근 발송, 전국교회에, 드리는 공개서한(제4신), 1976. 8. 20.
- ② 개혁주의 성경관중 특히 유기적 영감설을 이해하고 있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영감문제 있어서 독자영감, 만진영감, 유기적 영감을 표준으로 삼는다. 개혁주의 신학자중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팩커, op. cit., p. 230ff를 보라.

B. Eerdmans, 1961 pp. 11-27; G. E. Ladd, *A Theology of the N. T.* 1974. pp. 13-33를 보라). 성경이 모든 시대에 걸쳐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계시이기는 하나 이것이 결코 성경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2000년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고린도 교회에 역사적으로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 계시가 똑같은 동시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타기는 하나 고린도교회에 역사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동시성을 가지고 입한다는 사실 서로간에는 엄연한 구별이 있는것이다. 전자는 역사적으로 단 한번 주어진것으로 다시 되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의 소송문제를 해석 할때 그 계시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먼저 해석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아래로 억지로 끌어들이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해석뒤에 따라 나오는 이차적인 것이다. 더구나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에서처럼 일반적 원리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한 특수한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하

나님이신 동시에 참인간이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의 말이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의 신성못지 않게 똑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의 인간적요소가 신적요소 못지 않게 똑같이 강조되어야 한다. 양자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어는 하나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베후 2:16)라는 경고를 늘 귀감으로 삼아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비판에 대한 답변

먼저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필자의 글을 인용할때 왜 저들이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문장을 만들어 인용하고 있는나하는 점이다." 이것은 학적세계에 있어서 이해할수 없는 일일뿐 아니라 양심상의 문제이기도 하다(예를들면 제3신 제3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보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특수한 사건을 두고(우리에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서 ()의 내용을 빼 버림으로 완전히 의미가

- ③ 필자의 주54항과 여기에 대한 비판의 글들과 서로 대조해 보라. 얼마나 차이나고 있는지. 학적세계에서 인용문을 실을때 원문그대로 실는것은 가장 원칙적인 문제이다.

다르게 되도록 하였고, 제4권 2면 제일 밑줄 부분에서 “그 성경게시가 주어질 역사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다르기 때문에 꼭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인용문을 실었는데 이것은 저들이 완전히 주관적인 해석하에 새로 만들어 낸 문장으로 필자의 주에는 그와 같은 문장이 없으며, 크리스찬 신문에 실은 광고문 27째 줄에 “고전6:1-8의 교훈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정으로 고린도교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필자는 이런 주장을 결코 한 일도 없고 오히려 필자의 견해는 그 반대였다 (주54항 13째 줄, 22-23째 줄을 보라). 이상의 예들은 일부에 속한다. 만일 독자들이 원문들을 서로 대조해보면 얼마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그 글에서 무엇을 의도 하는지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저들 가운데로 필자의 글을 생각하고 해석하여 앞뒤의 문장 전후관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채 저들 필요대로 말들을 뽑아내어 그것을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⑩ 워필드박사는 화란의 아브라함카피어,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로 불려지고 있으며 A. A. 라지틀이어 구프리스톤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쳤다. 그의 책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개혁주의 성경관을 밝혀준 가장 권위있는 책으로 인정되고 있다.

것이다. 이것은 흡사 기독교내 이단 종파에서 성경의 전후문맥은 전혀 생각지 않고 한부분만을 뽑아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

(I) 가장 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하나님이신 동시에 참인간이신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의 말이라는 문제”

[답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라는 것과 그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유비관계에서 설명하는 것은 개혁주의 성경관의 일반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극단적인 이단적 주장으로 낙인 찍고 저들의 정치적인 선전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 이문제에 대한 여러 개혁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① 워필드(B. B. Warfield) 박사¹⁰⁾는 그의 “성경의 영감과 권위”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p. 16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인격의 경

우에 있어서 그 인성은 참으로 인성을 지니면서도 결코 죄에 빠지거나 오류에 떨어질 수 없었으니 왜냐하면 인성은 결합되어 있던 신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결코 홀로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인적요소와 신적요소의 결합된 작용에 의해 이루어질 때에도 인적요소는 인적요소대로 작용하여 그 특징을 작품 그대로 남겨 두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오류에 떨어질 수 없었던 것은 인적요소들이 신적요소를 떠나서 스스로 작용하지 못하고 다만 신적요소들의 무오한 지도아래서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② 바빙크(H. Bavinck) 박사¹¹⁾는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Gereformeerde Dogmatiek) 1권 p. 40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교리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의 교리는 계시의 중심적 사실인 성육의 적용으로 해결된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되었다. 이 두 사실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고, 모양과 풍채도 없는 종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 의 계시가 창조의 양식안으로, 인간과 민족의 생활과 역사안으로, 꿈과 환상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양식안으로 들어왔다. 말씀이 기록되었고 그 자체 기록되어진 양식에 복종하였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③ 보트너(L. Boettner) 박사¹²⁾는 그의 “신학연구”(Studies in Theology) pp. 2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간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기계적 영감설을 주장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상 복음주의 교회가 결코 그러한 주장을 한 일이 없었다. 성경 저자들은 기계나 타자기처럼 기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거나 말하는 동안에도 저들은 자기들의 사색과 의욕과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은 자기 독특한 문체와 기교를 그 작품에 나타내었다. 저들의 말이 히브리어 이었으면 히브리

⑩ B. 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The Presby. & Ref. Pub. Co(1970) p. 162.

⑪ 바빙크박사는 칼빈 이후 최대의 교의학자로 그의 “개혁주의 교의학”은 말후의 명저로 알려지고 있다. 화란자유대학 교의학 담당교수로 있었다.

⑫ 보트너박사는 그의 “칼빈주의 예정론” “불멸”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며 C. W. 라지밀에서 조직 신학을 연구했다.

어로, 저들의 말이 헬라어이 있으면 헬라어로 자자 기록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교육을 받은자이면 유식하게, 무식한 자이면 그러한 정도로 기록하였다. 우리는 신적요소와 인적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양자가 완전한 조화가운데 결합되었으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인간의 말인것임을 주장한다(We do not separate the divine and human elements, but insist that the two are united in perfect harmony so that every word of Scripture is at one and the same time the word of God and also the word of man).¹⁴

④ 영(A. J. Young)박사¹⁵도 그의 "당신의 말씀은 진리입니다"(Thy Word is Truth) pp. 65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 인적인 면이 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것임이니라"라고 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조성하시는데 사용한 이 거룩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하나님으로 부터 온것이라는 이 사

실만을 강조해 왔다. ... 이와함께 성경이 그 자신의 인간적면에 대해 말한것을 올바르게 평가하는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것은 오늘날 이교리에 대한 끊임없는 잘못된 설명때문에 더 중요하다. 최근의 보수주의 학자들은 영감에 대한 주제를 취급하면서 성경의 인간적면을 바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들은 기계적인 복사이론 주장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같은책 p. 25에서 벵후1:21을 설명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을때 저자들은 수동적이었다. 반면에 말하거나 쓰는데 있어서 그들은 능동적이었다. 이것은 얼핏 서로 모순되는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말씀이 신적말씀인 동시에 여전히 인간저자의 말이라는 진리에 포함된 신비의 표현인것이다"라고 하였다).

⑤ 뮌디(J. Murray)교수¹⁶도 그의 "성경의 증거"(The Attestation of Scripture) p. 1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성경자체는 자체의 인간 저자를 가졌다. 성경은 하늘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 전체에서나 모든 각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인간대리인을

¹⁴ L. Boettner, *Studies in Theolog* The presby., 974. pp. 23ff.

¹⁵ 영박사는 유명한 그의 구약총론(홍반사, 오병세공역)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으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교수로 있었다.

¹⁶ 뮌디 교수는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은퇴교수로 있는데 조직신학을 담당하였고 그의 로마서주석은 대단히 보수적이고 학적인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통해 우리에게 왔다. ...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동시에 인간의 작품이 되는가? 이 명백한 이율배반의 해결은 그것을 쓴 사람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⑥ 램(B. Ramm)박사도 그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Special Revelation and the Word of God) p. 179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에게 환영적성경(doctic Scripture)을 주지 않았다. ... 성경의 기록자들은 참된 저자들이다. 성령은 선지자나 사도들의 인간성이나 참된 저작권을 부인하지 않았다. ... 수세기를 걸쳐오면서 기독교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것을 주장해왔다.

(The Christian Church through the centuries has insisted that the total Scripture is at the same time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성경은 인간에 의해 쓰여졌을 췌라도 하나님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진리 일찌라도 인간저자의 산물이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말이면서도 그

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⑦ 팩커(J. I. Packer)박사도 그의 "성경적 권위, 해석학 및 무오류성(Biblical Authority, Hermeneutics and Inerrancy) p. 144이하에서 이렇게 밝힌다. "복음주의 자들은 성경이 신비라는 것을 성육이 신비라는 것에 유비해서 즉 한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동일시됨을 강조해 왔다. ... 성경은 참되고 완전하게 인적이며 또한 신적이다. 기록된 말씀과 성육된 말씀사이의 참된 유비가 있다. 양경우에서 신적인것이 인간적 양식과 일치하고 절대자가 상대적 양식으로 나타났

다. ⑧ 벨코프(L. Berkhof)박사도 그의 "성경해석학" (김진홍, 김의환역) p. 42이하에서 "성경저자문제에 있어서 신적요소와 인적요소와의 관계"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전술의 사실에서 성경저자에 있어 이중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단지 기계였거나 다만 필기자는 아니었다. 성경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들의 개성을 부정하지

¹⁷ 램박사는 그의 성경해석학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덴버의 보수침례회신학교에 봉직하고 있다.

¹⁸ 팩커박사는 현재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복음주의 학자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의 책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는 개혁신의 실행협회에서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였다.

아니하였다. ... 많은 성경책들이 우연성(偶因性)을 띠고 있다. 저자들의 외적 환경이 저자들로 하여금 글을 쓰게끔 하였고 그것을 읽는 원래 독자들의 도덕 상태와 종교적 형편에 따라서 성경책들의 성격이 결정되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어느정도 다른 책들도 조금 적용되지만 특히 바울과 베드로와 유다가 쓴 서신들에 적용된다. ... 그러므로 성령께서 성경저자들을 "그들의 그들됨"이"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아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성령께서 그들의 할일(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킨 그대로 그들의 개인적 특질이나, 그들의 성격과 기질이나, 그들의 재능과 교육이나 그들의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그들의 개성을 제압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제약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그들의 죄성을 발표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성경이 신적요소와 또 인적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말과는 다르다. 우리가 부당하게 성경을 갈라내어 어느 부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각각 돌려 분할 할 수 없다. 성

경은 그 전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과 형상에 있어서 가장 작은데 이르기 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다. 동시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란 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무오성으로 일관된 인간저작의 모든 특색을 띠고 있다."

이와같이 성경은 빌후 3:16이 가르쳐 주는 바대로 모든면에서 하나님자신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자신의 산물인" 동시에 빌후 1:21이 가르쳐 주는 바대로 또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인간 저자의 산물인 것이다." 진자는 성경의 신적기원을 무고 한말이며 후자는 성경의 표현양식을 무고 한 말이다.

성경의 이러한 이중적 면을 성경 자체가 충분히 증거하고 있다.

신약저자들이 구약을 인용 할때 모세가 말한것으로(롬 10:19, 마22:24, 막7:10, 행3:22), 모세가 기록한것으로(롬10:5, 막12:19, 눅20:28), 이사야가 말한것으로(요12:39, 막7:6, 막15:15), 다윗이 말한것으로(눅20:42, 행2:25, 롬11:9) 자자 표현했을뿐 아니라 베드로도 바울서신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① 벨코프박사는 전미국칼빈신학교로 교장이었으며, 그의 "조직신학"은 명저로 알려지고 있다.

② A. J. Young, op cit., pp. 20ff.

③ Ibid. pp. 23ff.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일에 관하여 말하였우되" (빌후3:15-16)라 하면서 바울서신의 바운 저작권을 뚜렷히 밝혔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이론을 따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저자에 의해 되어진 인간저자의 발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강단이나 신학교에서 "바울의 말", "요한이 말하기를", "바울사도의 교훈", "바울신학", "요한신학" 등의 표현을 허물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필자의 그런 표현이 신신학적인 것이며 자유주의 신학의 선포인가? 참으로 신학에 무식하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전문적 신학 지식을 갖지 못한 평신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내세운 교묘한 정치적 술책이라 보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2) 고린도전서6장의 해석과 그것의 적용사이에 구분하는 문제

[답변]

성경해석과 그것의 적용사이를 구분하는 문제도 첫째 문제와 같이 신교 성경해석원리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필자의 주를 마음대로

바꾸어 가면서 이문제를 극해하고 비판하였다.

필자는 성경해석에 있어서 성경계시가 주어진 역사적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성경이 모든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불변의 계시임을 분명히 밝혔다. (주54항2-8제출을 보라).

또 고전6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혔다(주54항 11-13제출) 다만 고전6장이 고린도 교회에 역사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과 그 계시가 오늘 우리에게 동시성을 가지고 임한다는 사실 서로간에 구별을 해야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계시의 유일회성과 종결성을 두르고 말한것이다. 성경으로 주어진 고전6장 계시는 단회적이며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6절에 이점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고 모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성경계시의 종결성과 완전성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던 이전방법은 이제 끝났다"(신앙고백1:1) "이 성경 위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

④ 성경의 이와같은 이중적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하면 B. B Warfield, op cit., pp. 131-166; A. J. Young, op cit., pp. 65-82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그 어떤것도 첨가되어 질수 없다”(신앙고백 1:6).

필자는 고전6장을 해석할때 그 계시가 주어진 역사적 상황에서 먼저 해석하도록 해야할것과 그것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시키는것은 이차적인것이라 했지 그것을 오늘에 적용시킬수 없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주54항 16-20제술).

필자는 다만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특수한 사건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필자가 로마서 13장을 일반적 원리라고 한것은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는 고전 6장처럼 어떤 역사적인 구체적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교훈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 보도록 하자.

① 벨코프(L. Berkhof)는 그의책 “성경해석학”(김진홍, 김의환 역)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지면상 역사적 해석법에서 몇가지 관계되는 부분만을 그의 책에서 인용, 소개 하고자 한다.

“a. 해석자는 자기가 해석하려는 책의 저자를 알아야 할것이니 곧 그의 출생, 성격, 기질과 지식적, 도덕적, 종교적 특성들과 동시에 그의 생활의 외부적 환경들을 알아야 한다. 또 성경 각책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를 위하여 그 책이 쓰여졌는지등을 잘 알아야 한다. 할수 있는 데로 해석자는 지금있는 역사적 재료에서 또는 역사적 원리하에서 그 책이 기록된 환경을 재생시킬 의무가 있다. ...해석자의 정신이 주후 일세기와 동양식 형편에 있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해석자가 저자의 입장에 있으며, 저자의 정신에 잠기도록 하되 저자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살고 그가 생각한대로 생각하는 것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해석자가 성경저자를 20세기에 사는 사람처럼 변하게 하거나 저자로 하여금 이 시대의 말로 그 책에서 말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같은책 p. 105).

“어떤 책이나 기사를 바로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본래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는지, 누가 듣기 위하여 말하여 졌는지 아는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예언

서와 신약에 있는 서신들에서 그러하다. 이 책들은 필연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드러나게, 또는 독자들에게 특히 필요하여서 쓴것이다. 저자가 필연적으로 고려했던 점들은 다음과 같으니 곧 저희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지위와 저희의 산업과 상업관계와 저희의 교육과 사회적 유익과 저희의 도덕과 종교적 특성과 저희의 특수한 개성적 표현법과 성향과 또 특별한 사고 방식등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공관복음이 서로 크게 차이가 있게된것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절한것 때문에 바울이 저희에게 엄하게 책망하는 서신을 써서 보낸 이유를 잘 설명하여 준다. ...본래의 독자들의 환경에 의하여 그책의 일반적 특성을 결정할뿐 아니라 그 특별한 점들도 설명하여 준다. 고린도교회의 분렬은 분명히 바울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기회를 준것이니 곧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고전 3:22, 23)고 하였다(같은책 p. 113이하).

② 램(B. Ramm)박사는 그의 “성경 해석학”(권혁봉 역)에서 해석과 적용의 관계를 취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경의 참된 목적은 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세상의 도구이다...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한 하나의 격언이 있다. “해석은 하나이나 적용은 많다” 이것은 성경을 예의 검토 연구해보면 한 성경구절에는 오직 하나의 의미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나야 하리라”(요 3:7)는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5, 6개의 설교가 나올수도 있다. 설교자가 본문을 여하히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설교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설교자는 본문의 최후의 기본적 의미와 그 본문을 사용해서 자기가 특수하게 만든 적용과를 언제나 구분해야한다. ... 그러므로 설교자가 인식해야할 필수적인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본문의미의 해석과 그것을 적용하는 범위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과 또 설교자는 언제나 해석과 적용 양자를 분리 해야 한다는 점이다”(같은책 p. 143-144).

“성경해석의 참된 언어학적 정신 또는 비평적정신, 또는 학문적 정신은 본문의 본래의 의미와 의도를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의 목표는 exegesis 즉 본문에서 부터 의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며 다만 “eisegesis” 곧 본문에다가 다른 어떤 의미를 추가시키는 일을 피하는 것이다. 무더는 그것을 이

② 벨코프박사가 쓴 성경해석학은 신교성경해석원리를 간결하게 아주 잘밝혀 놓은 책이고 또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니 이글을 읽는 모든 독자가 꼭 한번 읽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렇게 말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자기의 품은 의미를 성경속에 집어 넣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부터 의미를 취해 나오는 자이다."¹⁰ (같은 책 p. 146).

③ 팩커(J. I. Packer)박사도 그의 "성경적 권위 해석학 및 무오류성"에서 성경해석학의 세가지 단계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a. 주해(Exegesis)는 본문으로 부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세, 주장 등등 즉 짧게 말해서 인간저자의 모든 의도를 끄집어 내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중세 주석가들이 애호한 풍유적 해석에 반대해서 불인바 축어적(문자적)의 미이다.

소위 문법적 역사적 방법을 통해 주석가는 그 자신을 저자의 언어적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배경에 일치시켜 그 본래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역사적 복음주의의 주해방법이 되어왔다. 이 주해적과정은 영감론서의 충분한 인간성을 전제한다.

b. 종합(Synthesis)은 집성의 과정, 즉 역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양식, 주해의 결과등을 때때로 성경신학이나 주석의 관점에서 개괄 하는 것인데 이 종합적 과정은 성경의 유기적특성을 전제한다.

c. 적용(Application)은 다음과 같은 질문 즉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본문이 기록되어진 상황에서 그가 행하신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셨다면 그가 우리의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실려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을 찾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용적 과정은 한시대로 부터 다른 시대까지 하나님의 일치성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도록 동일하시니라" (히13:8)라는 사실은 전제한다."¹¹

팩커박사는 또한 그의 "근본주의와 성경의 권위"에서 성경에 의한 성경해석을 강조하고 신약성경에서 로마서가 가진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신약가운데는 성경이 간직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책 하나가 있다. 그것은 로마서이다. 이점을 칼빈은 그의 로마서 주석 서두에 공경하게 기록

하였다. '만일 사람이 그걸을 이해하게 되면 그는 성경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것이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성경의 모든 대주제들, 죄악, 율법, 심판, 믿음, 행위, 은총, 칭의, 성화, 선택, 구원계획,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안에서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 교회와 세계사의 철학, 구약의 의미와 메세지, 기독교서민의 의무, 개개인의 경건과 윤리의 원리—을 한데 모아 조직적인 관계에서 체계화시켰다. 로마서가 준 유력한 위치에서 보면 성경의 전체풍경을 한눈에 볼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분과 전체와의 폭넓은 관계가 명백하여진다. 로마서 연구는 성경해석과 신학을 위한 최적의 출발점이다" (같은 책 p. 134).

지면상 준비된 자료를 다 읽지 못하지만 이상의 글들을 주의깊게

읽은자는 성경해석원리에 있어서도 필자의 주54항이 하등 어긋남이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맺는 말)

필자는 이 글에서 필자의 이전 논문이 완전무결하다거나 성경의 가르침에 완전히 일치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필자의 논문은 여러면에서 비판되어져야할 점들을 갖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필자는 칼빈이나 크로쇼이더등 개혁신학자들의 주장을 바르게 소개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이것은 어느정도 그대로 되어졌다고 양심에 부끄럼없이 말할 수 있다. 예를들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본문의 주석에 있어서는 필자는 크로쇼이더 화란판 주석을 거의 그대로 번역 소개하였다."¹²

필자는 계속해서 필자의 논문에

⑩ 필자는 바울이 롬 13장과 고전6장에서 취급하는 주제가 각각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전6장 해설에 있어서 롬13장이 간접적으로 참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Greijdanus, Rom., II, p. 564; F. F. Bruce, Romans, Tynedale N. T. Comm., 1967, p. 236ff; H.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trans J. R. De Witt, W. B. Eerdmans (1975), p. 325).

그리고 소송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칼빈이나 크로쇼이더의 입장이 옳다고 보아진다. 그들은 결코 성도간의 소송자체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지 않았다. 그들이 문제삼은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있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들어 성도간의 소송자체를 문제삼아 그것이 성경적이지니 비성경적이지니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것이다. 필자가 파악하기를 바울은 확실히 고전6장에서 성도간의 소송을 책망하고 있다. 성도간의 소송은 신자들이 마땅히 피해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신자간에 이런 문제는 일어나서도 안되고 또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해결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의 소송문제도

⑩ 개혁자 칼빈도 이점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주석가 첫째로 주의 할것은 성경적 자료 하여금 그가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그로하여금 말하게 하지 말것이다"라고 하였다. 벨코프, 성경해석학, p. 23참고.

⑪ J. I. Packer, "Biblical Authority, Hermeneutics and Inerrancy" in Jerusalem & Athens, presby., (1971), pp. 145ff.

대해서 충분한 신학적 근거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여 성경적 진리가 더 밝게 설명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인간의 모든 해석은 상대적이며 제한 된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의해 비판되고 도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바라는 것은 필자의 진심을 외면한채 그것을 정치적 이용물로 삼지 않았으면 하는 점이다.”

이 자리를 빌어 필자의 논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분들에 대해 불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필자의 논문을 얼마나 주의깊게 읽고 필자가 인용, 참고한 원서들을 서로 대조해서 신학적 분석을 하였는지 하는 점이다. 칼빈의 주석이나 기독교강요를 한번도 읽지 않고 칼빈을 운하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저들은 필자의 성경관이 잘못된 것처럼 과대선전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필자의 논문을 결어 고려신학대학이 신신학적으로 좌경이나 한 것

처럼 악선전하였는데 그분들이 성경관에 대해서, 성경해석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읽었으며 신학적 기반을 갖고 있는냐하는 점이다.

어제 졸업한 모교를, 어제까지 배운 은사님들을, 어제까지 함께 배운 동료들 아무런 학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까지 극단적으로 몰아부칠수 있는지...

의람되나마 필자는 본 교단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7년동안 신학공부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해왔다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수 있다. 7년동안 공부하면서 필자는 우리 학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신신학적 강의를 한번도 들은적이 없다.

필자는 공부해오면서 교수님들의 강의와 개혁신학자들의 저서들을 통해 참으로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임을 가슴에 새길수 있었으며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

결국 사람의 결함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급일 우리교단에 야기된 소송문제는 성도간의 윤리문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떠들고 자기들만 의로운채 한다면 그것은 더 옳지 못하고 성경의 교훈에도 벗어나는 것이다.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자기 양심대로 했다면 우리는 일단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겨 기다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② 필자의 소송문제에 대한 주석학적 연구는 순전히 필자 개인의 연구논문이며 이 답변의 글도 순전히 필자 개인의 글이다. 그러나 필자의 순수한 마음을 외면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관과 해석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분야의 책들을 읽어 오고있다. 필자는 현재까지 이분야에 관계되는 원서들만해도 50권이상을 읽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학적 근거도 없이 생트잡을 잡아 필자의 성경관을 비판하고 모교를 욕하고 있으니 무어라 계속 답변해야 할런지.....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당한 처지를 가슴아파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여, 말씀으로 돌아와, 말

씀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바랄뿐이다.

참된 교회개혁은 바깥에서의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스스로 개혁자가 되어 헌신할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당신의 피로사신 교회를 계속 개혁시켜 나가실 것임을 굳게 믿는 바이다.

“교회는 개혁되어졌기 때문에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Ecclesia semper reformanda quia reformata)-

—John Calvin—

공개서한을 보낸 분들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필자의 논문에 대해 더 이상 비 학문적이고 정치적인 사적 공개서한을 보내어 교회를 혼란 시키지 말고 지면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인 신학적 논쟁을 벌였으면 한다. 이것이 신학을 배운 젊은이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며 그렇게 할때 우리의 신학도 계속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 고신대 신학연구과 3년